

제3섹터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쟁점

송 관 호 유 지 열 권 현 준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 |
| 2. 인터넷 거버넌스의 등장과 영역 | 4. 결 론 |

1. 서 론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그에 조응하는(corresponding) 사회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러한 사회구조를 움직이는 내적 동학에까지 충격을 주어 정보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사회운영원리가 요구되고 있다.(Webster, 1995; Bell, 1973) 이에따라 이미 1970년대부터 기존의 사회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제3섹터 또는 시민운동(NGO)로 불리는 비정부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운동들이 사회 개혁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Fukuyama, 1995; Etzinoni, 1996; Seligman, 1998).¹⁾

1980년대 이후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비정부부문에서 스스로의 관리 운영의 움직임, 즉 자율규제에 의한 공동체 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기존의 위계적이고 관료제적인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운동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주성수, 2000). 따라서 우리는 거버넌스를 기존의 정부에 의한 지배(Rule)나 통치(Govern)을 뛰어넘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부문이 공동참여하여 상호협약하에 공동체의 질서유지 및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운영관리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은 1990년대부터 가속화되는 IT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의 네트워킹화, 즉 지구촌화에 의해 촉진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과거 소수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공동체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 즉 거버넌스에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로운 거버넌스를 촉진하게 한 인터

2)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조직화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명칭에서부터 제3섹터, NGO, 시민단체 등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조직형태, 분류 방식, 활동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각 사회가 처한 환경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이들 조직화 방식도 매우 다양하고,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도 매우 다르다(Salaman & Anheier, 1996). 한편, 제3섹터 발전정도에 대해서 비교연구자인 Jon Van Til(1988)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3섹터가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 기업, 전권노조 등의 거대 조직들이 사회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장치구조, 즉 조합주의(Coporatism)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제3섹터가 경시되며 제3섹터의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 1970년대 이후 급증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운영 및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시민단체나 조직을 제3섹터, 비정부단체(NGO), 시민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형태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부르주아 시민사회와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1970년대 급증하는 자율적 시민조직을 제3섹터라 부르고자 한다.

넷 영역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관리양식이 지배적이며, 나아가 기술에 의해 운영이 지배되는 상황에 처해있다(Pare, 2003).

본 글에서는 제3섹터 또는 시민 사회영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지구촌을 하나의 네트워크화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영역인 인터넷의 거버넌스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인터넷영역은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지구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변동 그리고 거버넌스 논의의 기반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영역, 특히 인터넷의 기본 질서와 발전방향을 다루는 인터넷주소에 대한 관리문제는 향후 지구촌의 발전 방향과 민주주의 달성에 핵심이 될 것이다.

2. 인터넷 거버넌스의 등장과 영역

2.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인 인터넷 영역의 질서와 운영방식으로 거버넌스의 등장은 시민조직 또는 제3섹터의 등장과 발전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제3섹터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침체, 지구촌 환경의 위기 및 사회주의의 몰락 등에서 기인한다(헬무트 안하이어, 2002).

전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서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와 경제침체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는 복지의 축소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정부 실패 또는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 제도가 제도화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증가되는 시민단체 등의 제3섹터 활동이 강화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침체는 정부로 하여금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하고, 나아가 제3섹터가 정부정책과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저성장

과 경기침체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³⁾

또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지구촌 자원으로 공동노력과 대처 운동이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새로운 정치질서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을 촉진하였으며, 과거 사회주의권의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은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정치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였다.

시민들의 사회문제 및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산업화과정의 물질적 풍요와 중산층의 확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다. 나아가, IT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국제화, 지구촌화를 이끌면서 전지구촌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3섹터 혁명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수직적인 통치체계에서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2.2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는 인터넷의 핵심문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란 인터넷 이용자 및 다양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제3섹터,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인터넷의 질서와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며 모양지어 가는 과정이다.⁴⁾

현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에 포함되는 영역은 서비스와 생산품의 교환 및 공동자원(인터넷주소자원)

- 3) 각국의 상황과 더불어서 UN,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관들이 제3세계의 지원조건으로 비정부, 비영리 제3섹터 기관들의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는 심각한 외부의 압력을 받게되었다(주성수, 2000).
- 4) 초기 인터넷거버넌스란 용어는 1990년대 중반 "Harvard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학자들에 의하여 루트서버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 채택, IP 주소 할당 및 DNS 운영 등 인터넷 핵심 자원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Wolfgang, 2004).

의 이용과 같은 좁은 영역에서부터 기술이나 네트워크의 발달 및 발전된 기술 및 서비스의 응용과 같은 넓은 범위의 영역까지를 포괄한다(Don MacLean, 2004).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질서와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향후 발전 등 인터넷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함축적인 용어이다(Adam, 2004).

본 글에서는 인터넷 작동의 핵심이자 기본적인 영역이며 최근까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국한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3.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

3.1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주소자원 국제관리기구로 알려져 있는 ICANN은 미상무성과의 업무협약에 의해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 비영리민간법인으로 설립되어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비영리기구인 ICANN의 탄생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힘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어 민간의 자율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ICANN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ICANN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시스템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통제기능이 ICANN을 통해 오히려 세련되게 조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2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와 인터넷 거버넌스

WSSIS(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는 21세기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간 중요원칙을 정립하고자 UN산하 ITU중심의 정부차원의 정상회의로서, 정책결정수립과정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도국 및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의제중 하나로 부각된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는 “인터넷에 관련된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정책 권원은 국가의 주권⁵⁾”이라는 정치적인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이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⁶⁾

그러나, 인터넷거버넌스의 핵심문제중의 하나인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터넷주소 자원을 국가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더 이상 소수그룹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3 인터넷주소관리의 주요쟁점

인터넷은 도메인이름시스템(DNS)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에, 도메인이름시스템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즉 인터넷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인터넷거버넌스 문제는 현재의 개별 민족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의 정책수립과 관리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3.3.1 루트서버의 일방적 관리

현 도메인이름체계는 루트를 정점으로 한 계층적 구조로, 전 세계에 배치된 13개 루트서버 운영자들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및 ccTLD 등 모든 258개의 TLD가 포함된 루트존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루트서버는 전 세계에는 13개 중에서 10개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 배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2개국에 루트서버의 복사본을 배치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5) WSSIS 선언문(2003, 12, Geneva), 제49조 (a) Policy authority for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is the sovereign right of States.

6) 2004년 3월 UN 사무총장은 전 스위스 외무부의 Markus Kummer를 WGIG(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사무국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WGIG은 제네바 원칙선언(2003)에 따라서 인터넷거버넌스의 실무적 정의와 관련 공공정책 사안을 파악하며, 인터넷거버넌스상의 정부, 기존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2005년 7월에 제출하였으나, 합의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 1) 전세계 루트서버의 운영현황

name	운영기관	소재지	URL
a	Verisign	Dulles, VA, US	http://www.internic.org
b	USC/ISI	Marina del Rey, CA, US	http://www.isi.edu
c	PSInet	Herndon, VA, US	http://www.psi.net
d	UMD	College Park, MD, US	http://www.umd.edu
e	NASA	Mt View, CA, US	http://www.nasa.현
f	ISC	Palo Alto, CA, US	http://www.isc.org
g	DODNIC	Vienna, VA, US	http://nic.mil
h	ARL	Aberdeen, MD, US	http://www.arl.mil
i	Autonomica	Stockholm, Sweden	http://www.nordu.net
j	Verisign	Dulles, VA, US	http://www.iana.org
k	RIPE	London, UK	http://www.ripe.net
l	ICANN	Marina del Rey, CA, US	http://www.icann.org
m	WIDE	Tokyo, Seoul	http://www.wide.ad.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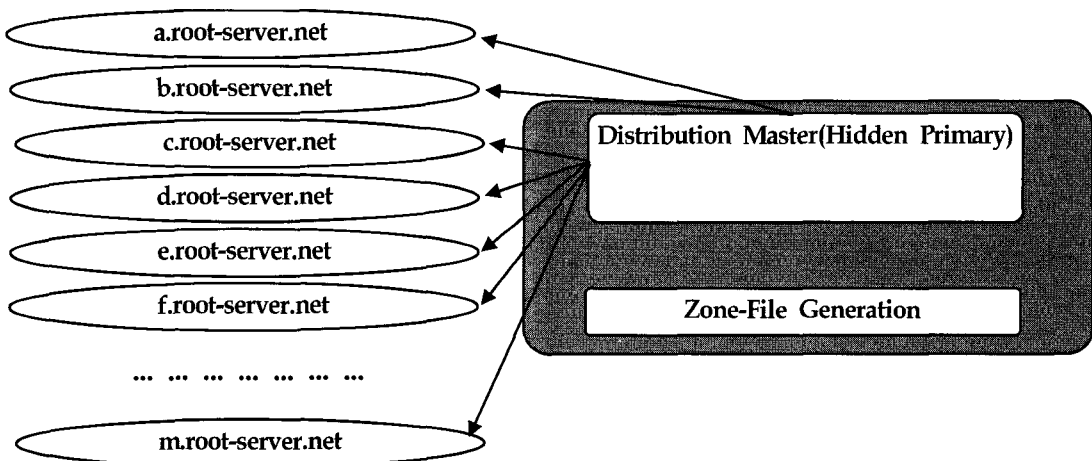
아직까지 루트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미상무성이 갖고 있다.

인터넷은 인터넷주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도메인이름시스템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2002년 이전에는 A루트서버를, 그 이후에는 히든상위서버를 미국상무성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현실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개도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ICANN 중심의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의 ccTLD의 생성, 위임 등이 해당 국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 상무성(DOC, Department of Commerce)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결국 미국은 어떤 나라의 ccTLD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갖는 인터넷관련 국제적 협상력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미 상무성의 TLD 위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 문제
미상무성은 ICANN과 전 세계 주소자원의 관리를



(그림 1) 현 루트서버시스템 구조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ICANN은 비상무성의 허가 없이는 'TLD의 위임' 및 재위임과 관련한 존파일 정보의 수정, 첨가, 삭제 등'을 수행할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TLD에는 .com, .net 등의 gTLD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ccTLD가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상무성은 gTLD는 물론 전 세계 국가최상위도메인인 ccTLD의 위임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정부들은 자국의 ccTLD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도메인이름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기술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많은 국가들은 현 도메인이름시스템에 자신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독단으로 좌지우지되는 현 국제인터넷주소관리체계는 정책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중심이 되어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정상회의(WISIS회의)에서 중국, 아랍국들,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고, ITU와 같은 UN산하의 보다 중립적인 국가간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3.3.3 IP 주소의 국제적 불평등 배정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에 유일하게 할당되어 사용되는 인터넷주소로서 현 IPv4 주소체계는 42억 개 정도의 한정된 주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내에 고갈 될 것으로 예견된다. 2003년 12월의 정보사회정상회의(WISIS)에서는, IPv4 주소의 80%가 북미지역에 편중 배정할당되어 있음을 적시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1999년 이후 배정된 IPv4 주소를 대략별로 살펴보면, APNIC(32%), RIPE NCC(29%),

ARIN(37%), LACNIC(2%)에 달하고 있어, 아태, 유럽, 북미지역 등에 고르게 편중된 듯이 보이나, 1995년 이전에 북미대륙에 편중되어 배정된 IP 주소를 회수하여 타 대륙에 재배정하는 문제는 현재 RIR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국제적 과제일 것이다.

4. 결 론

제3섹터의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소관리 정책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ICANN과 비상무성 중심의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는 ICANN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미국, 호주, 일본 등 IT 선진강국들은 대부분 기존의 ICANN 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역사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민간의 영역에 맡겨질 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에 민간기구들 중에 ICANN은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고, 지금도 신뢰할 만한 단체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 남아공화국, 브라질, 아랍국가들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주소 거버넌스는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글로벌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UN산하의 정부간국제기구에 의해 많은 이해당사국이 참여하여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정책개발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터넷의 탄생 초기에는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았고 전문 기술측면이 강조되어 민간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여왔고,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나, 이제는 인터넷주소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와 인간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민간에 의한 관리에 맡기기보다는 보다 공신력 있는

7) TLD의 위임이란 해당 TLD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ICANN은 상무성의 통제아래 gTLD와 ccTLD들의 관리자를 지정해왔는데, 과거에는 IANA D/B상의 Administration Contact에 지정된 자연인을 관리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 ICANN 정관은 TLD의 관리자를 IANA D/B에 Sponsoring Organization으로 지정된 관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참조 ICANN 정관 IX Section 4.1)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ICANN 중심의 관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인식되고는 있으나, 인터넷 거버넌스는 이론상이 아닌 현실의 국제역학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현재와 같은 체제로 나아갈지 아니면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UN과 같은 민족국가가 멤버가 되는 국제기구 중심의 관리체제로 나아갈지, 아니면 최근의 발전 양상인 제3섹터로 불리는 시민사회와의 조화를 통하여 발전해나갈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현재의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사회의 편제를 감안해 볼 때 ICANN체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현재 인터넷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제3섹터와의 협력으로의 힘의 균형추가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1]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출판부, 2000.
- [2] 헬무트 안하이어, 제3섹터란무엇인가, 노연희 옮김, 아르케, 2002.
- [3] Adam P., "Internet Governance and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SIS)", Prepared for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APC), Unpublished Paper, 2003.
- [4] Bell, D.,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iew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 1973.
- [5] Daniel J. P., Internet Governance in Transition: Who is the Master of This Domai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 [6] Etzinoni, A., The New Golden Ruls: Community and Morality in a Democratic Society, N.Y.:Basic Books, 1996.
- [7]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 [8] Mitcham, C., "philosophy of Technology", in Paul T. Durbin(ed), The Cultur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The Free press, 1980.
- [9] Mitcham, C. & Mackey, R., "Introduction: Technology as a Philosophical Problem", in Carl Mitcham & Mober Mackey(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the Free Press, 1971.
- [10]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 Free Press, 1995.
- [11] Salaman L and Anheier, H., The emerging Nonprofit Sector: An overview, Lond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12] Seligman, W., "Between Public and Private", Society, March/April, 1998.
- [13] Van Til, J., Mapping the Third Sector: Voluntarism in a Changing Social Economy, New York: Foundation Center, 1988
- [14] Webster, Frank,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London, 1995.
- [15] Wolfgang K., Internet Co-Governance: Towards a Multiplayer Mechanism of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M3C3), 2004.
- [16] WSIS, "Policy authority for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is the sovereign right of States", Zeneva, 2003.
- [17] <http://www.root-servers.org>, 2005.

● 저자 소개 ●



송 관 호

1980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1984년 2월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석사)
1995년 2월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학과 졸업(박사)
2005년 9월~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관심분야 : 네트워크, 정보통신, 인터넷주소관리



유 지 열

1988년 8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학사)
1991년 8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1997년 2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사회학과 졸업(박사)
2002년 5월~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관심분야 : 정보사회학, 정보불평등, 인터넷거버넌스



권 현 준

1989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학사)
1991년 2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 졸업(석사)
1996년 5월 미네소타 법과대학원 JD 졸업(박사)
2002년 5월~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외협력팀장
2004년~2006년 ICANN 인터넷주소위원회 아태지역 대표위원
관심분야 : 인터넷거버넌스, ICANN, WSIS